

2026년 1월

(자료: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)

서울지역 고용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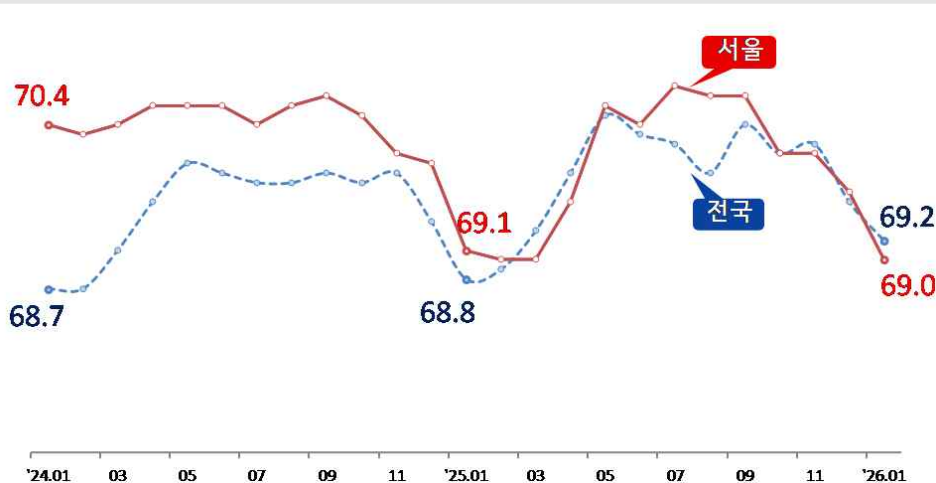
서울고용노동청
문의: 지역협력과(2004-7954)

- ▶ 고용률(60.1%, -0.2%p), 15~64세 고용률(69.0%, -0.1%p) 모두 하락
- ▶ 취업자(-1만 7천명) 2개월 연속 감소
 - 청년과 남성,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의 감소폭 확대 영향
- ▶ 비경제활동인구는 4만명(+1.3%) 증가

(전년동월대비)

	취업자 증가	취업자 감소
성 별	여성(+4만 4천명)	남성(-6만 1천명)
연 령	50대(+2만 1천명), 60세이상(+2만명), 30대(+1만 9천명)	청년(-6만 3천명), 40대(-1만 3천명)
산 업	도소매·숙박음식업(+3만 5천명)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+2만 7천명), 제조업(+1만 3천명)	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(-6만 2천명), 건설업(-2만 9천명)
종사상 지 위	자영업자(+4만 6천명) 고용원 有 자영업자: +1만 7천명 고용원 無 자영업자: +2만 9천명	상용근로자(-2만 5천명), 임시근로자(-3만 5천명), 일용근로자(-1천명), 무급가족종사자(-1천명)
직 업	사무종사자(+4만 2천명), 서비스·판매 종사자(+2만명), 기계조작·조립종사자(+9천명), 기능원(+4천명)	관리자·전문가(-6만 5천명), 단순종사자(-2만 2천명)
취업시간	일시휴직자(+1만 5천명)	36시간 이상(-1만 9천명), 36시간 미만(-1만 3천명)

15-64세 고용률(%) 추이



전 국

서 울

(전년동월대비)

전체 인구 (주민등록)	5,111만 1천명 · 9만 7천명 감소(0.2%↓)	930만명 (전국의 18.2%) · 3만 1천명 감소(0.3%↓)
15세이상 인구	4,591만 4천명 · 24만명 증가(0.5%↑)	845만 5천명 (전국의 18.4%) · 1만 1천명 감소(0.1%↓)
경제활동인구	2,919만 7천명 · 23만 6천명 증가(0.8%↑) - 경제활동참가율 63.6%(0.2%p↑) (월) 청년층 46.7%(1.0%p↓)	527만 5천명 (전국의 18.1%) · 5만 1천명 감소(1.0%↓) - 경제활동참가율 62.4%(0.5%p↓)
취업자	2,798만 6천명 · 10만 8천명 증가(0.4%↑) - 고용률 61.0%(0.0%p) - 15~64세 고용률 69.2%(0.4%p↑) (월) 청년층 43.6%(1.2%p↓)	508만 4천명 (전국의 18.2%) · 1만 7천명 감소(0.3%↓) - 고용률 60.1%(0.2%p↓) - 15~64세 고용률 69.0%(0.1%p↓)
실업자	121만 1천명 · 12만 8천명 증가(11.8%↑) - 실업률 4.1%(0.4%p↑) (월) 청년층 6.8%(0.8%p↑)	19만 1천명 (전국의 15.8%) · 3만 4천명 감소(15.1%↓) - 실업률 3.6%(0.6%p↓)
비경제활동인구	1,671만 7천명 · 4천명 증가(0.0%↑)	317만 9천명 (전국의 19.0%) · 4만명 증가(1.3%↑)

- 경제활동참가율(%)
경기(64.7) > 인천(64.4) > 대전(63.0) > 광주(62.8) > 서울(62.4) > 울산(60.9) > 부산(59.9) > 대구(59.2)
- 15~64세 고용률(%)
경기(70.0) > 서울(69.0) > 인천(69.0) > 부산(68.6) > 대전(67.0) > 울산(66.9) > 광주(66.5) > 대구(65.6)
- 실업률(%)
대구(5.1) > 부산(4.8) > 대전(4.7) > 광주(4.6) > 인천(4.5) > 경기(3.8) > 울산(3.7) > 서울(3.6)

2026년
1월
서울고용동향

취업자수 감소하며 고용지표 부진 지속 -청년층,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 및 건설업의 어려움

* 조사대상주간: '26.1.11.~1.17.

총괄

고용률은 60.1%(-0.2%p)로 2개월 연속 하락, 전국(61.0%, 0.0%p)보다 0.9%p 낮음

- 15~64세 고용률은 69.0%(-0.1%p)로 전국(69.2%, +0.4%p)을 0.2%p 하회

실업률은 3.6%(-0.6%p)로 6개월 연속 하락하고, 전국 실업률(4.1%, +0.4%p)을 0.5%p 하회

취업자수

취업자(508만 4천명, -1만 7천명)는 2개월 연속 감소, 청년층,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 및 건설업의 부진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1)-94 (2)-98 (3)-108 (4)-72 (5)4 (6)-22 (7)28 (8)29 (9)9 (10)-20 (11)8 (12)-30 ('26.1)-17

* (전국) 취업자수(+10만 8천명)는 운수창고, 예술·스포츠, 도소매 등 내수연관 업종과 보건복지업 등은 증가 지속하고, 건설, 제조업은 감소폭을 축소하였으나, 전문·과학서비스업의 감소폭 확대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1)135 (2)136 (3)193 (4)194 (5)245 (6)183 (7)171 (8)166 (9)312 (10)193 (11)225 (12)168 ('26.1)108

산업별

-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의 증가폭 확대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은 증가 지속
-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은 감소폭 확대하고 건설업의 어려움 지속

▶ 도소매·숙박음식점업(+3만 5천명, +3.1%)은 소비심리, 경기 회복 영향으로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증가폭도 확대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1)-84 (2)-68 (3)-35 (4)-3 (5)4 (6)1 (7)-16 (8)-2 (9)21 (10)3 (11)2 (12)13 ('26.1)35

* 소비자심리지수(CCSI): ('25.1)91.0 (2)95.0 (3)93.2 (4)93.6 (5)101.7 (6)108.6 (7)110.7 (8)111.2 (9)110.0 (10)109.6 (11)112.3 (12)109.8 ('25.1)110.8

▶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(+2만 7천명, +1.2%)은 돌봄수요, 직접일자리 등 영향으로 증가 지속하나 증가폭은 축소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1)93 (2)71 (3)75 (4)66 (5)105 (6)95 (7)132 (8)102 (9)71 (10)60 (11)62 (12)36 ('26.1)27

▶ 제조업(+1만 3천명, +3.3%)은 그간 감소세에 따른 기저효과로 2개월 연속 소폭 증가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1)-104 (2)-99 (3)-131 (4)-145 (5)-129 (6)-117 (7)-82 (8)-45 (9)-19 (10)-10 (11)-12 (12)1 ('26.1)13

▶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(-6만 2천명, -6.0%)은 정보통신분야 기채용 영향 등으로 감소폭 확대하며 6개월 연속 감소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1)38 (2)35 (3)34 (4)50 (5)34 (6)10 (7)9 (8)-15 (9)-36 (10)-32 (11)-8 (12)-41 ('26.1)-62

▶ 건설업(-2만 9천명, -9.5%)은 건설경기 불황 지속으로 15개월 연속 감소세

* 증감(전년동월비, 천명): ('25.1)-34 (2)-36 (3)-49 (4)-35 (5)-6 (6)-5 (7)-9 (8)-8 (9)-25 (10)-38 (11)-34 (12)-36 ('26.1)-29

* (전국) 보건·복지(+18만 5천명), 운수창고(+7만 1천명), 예술·스포츠(+4만 5천명), 교육서비스(+3만 6천명)등의 증가
전문·과학서비스(-9만 8천명), 공공행정(-4만 1천명)는 감소폭 확대, 정보통신(-2만 1천명)은 감소 전환

연령별

- 청년층(-6만 3천명)는 감소폭 확대, 40대(-1만 3천명)는 감소 흐름 계속
- 60세 이상(+2만명)과 30대(+1만 9천명)는 증가, 50대(+2만 1천명)는 증가 전환

* (전국) 청년층(-17만 5천명)은 감소폭 확대, 40대(-3천명)는 감소폭 축소

60세 이상(+14만 1천명)은 증가폭 축소, 30대(+10만 1천명)는 증가폭 확대, 50대(+4만 5천명)는 증가 전환

종사상 지위

- 임금근로자인 상용직(-2만 5천명), 임시직(-3만 5천명), 일용직(-1천명)은 감소
-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(+4만 6천명)는 증가, 무급가족종사자(-1천명)는 감소 전환
- 고용원 有 자영업자(+1만 7천명), 고용원 無 자영업자(+2만 9천명) 모두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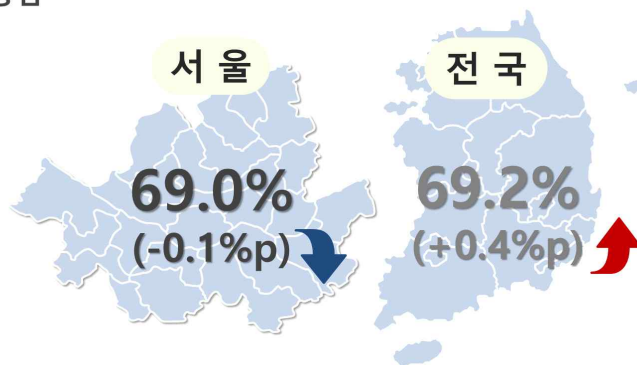
* (전국) 상용직(+19만 2천명), 일용직(+2만 6천명)은 증가, 임시직(-9만 7천명)은 감소폭 확대

자영업자(+4만 5천명)- 고용원 有 자영업자(+5만 6천명)는 증가, 고용원 無 자영업자(-1만 1천명)는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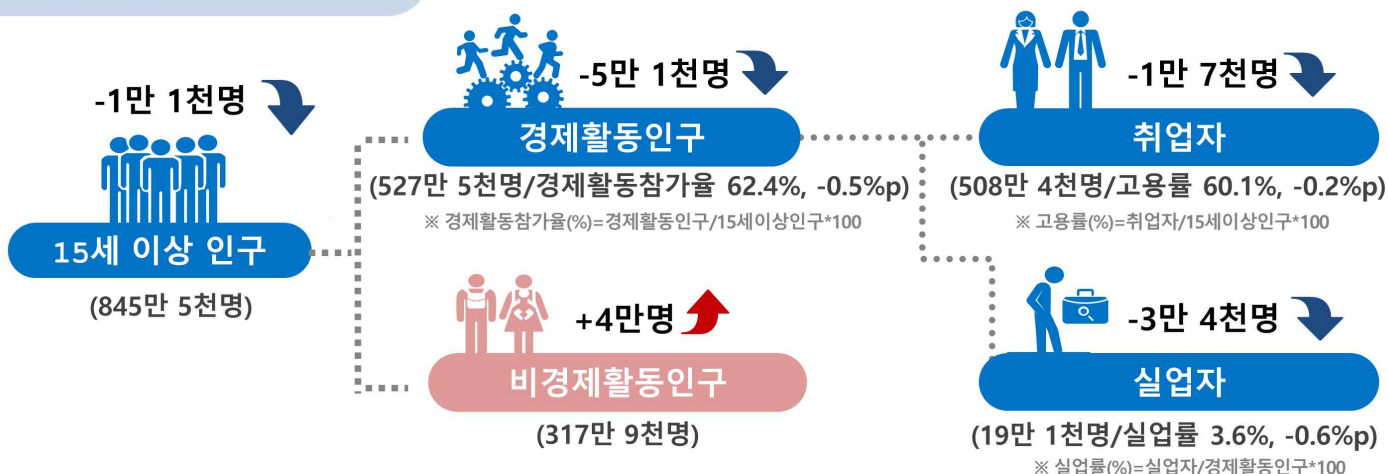
서울지역 고용동향

고용률(15~64세) OECD기준 ※ 전년동월대비 증감



경제활동인구 구조

※ 15세 이상 기준, 전년동월대비 증감



취업자수 증감

※ 전년동월대비 증감(률)

